

해외동향

ABROAD TREND

멕시코 발전설비 시장 활기 예상

멕시코 발전설비 시장규모는 2003년 기준 연간 36억 달러 규모이며, 금년에 2.5%, 2005년에는 3.5%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멕시코 전력부문은 신규 발전소 건설, 전력 인프라 향상, 전력 공급 시스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로 계속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에너지부는 '2003-2012 전력부문 계획'을 통해, 멕시코의 생산전력이 2003년 말 4만5526MW에서 2012년에 6만2730MW로 높이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28개 발전소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멕시코 전력산업은 1992년까지 전력청(CFE)과 전력센터(LyFC:Luz y Fuerza del Centro), 두 정부 기관의 독점 부문이었으며, 현재까지도 멕시코 공공 전력 공급은 CFE와 LyFC, 두 기관이 독점하고 있다. CFE가 공공 전력서비스의 96%를 차지하고 있고, LyFC는 멕

시코 시티 및 주변지역에 4%정도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멕시코 에너지부에 따르면, 멕시코 생산전력 중 CFE가 81%, LyFC가 8%, 자가발전(self-supplier) 7%, 열병합발전시스템 4% 등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멕시코 정부에서 발전소 건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열병합발전을 권장하고 있어, 열병합발전시스템(Cogeneration system)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2004년 3월 기준, 멕시코내에 31개 열병합발전소가 있으며 2114MW를 생산하고 있다. 멕시코 에너지절약위원회는 열병합발전소의 생산가능 전력이 산업용 5200MW, PEMEX용 1613MW, 상업용 773MW 규모인 것으로 보고 있다.

〈멕시코 발전설비 시장 규모〉

(단위 : 10억달러)

구 분	2003	2004*	2005*	연평균성장률
수 입	10.4	10.8	11.2	3.6%
생 산	2.7	3.0	3.3	10.0%
수 출	9.5	10.1	10.7	5.6%
전체시장규모	3.6	3.9	4.0	4.0%

주) * 예상치
(자료원 : 미상무부, 2004)

해 | 외 | 동 | 향



2003년말 기준 멕시코 발전설비 수입시장의 69.8%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6.2%, 중국 5.2%, 대만 2.9%, 독일 1.4%, 기타 14.5%로 나타나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미국산 수입규모가 73억달러, 나머지가 31억달러 수준이다. 멕시코 발전설비시장의 미국 주요 공급업체로는 Asea Brown-Booveri, General Electric,

Westinghouse-Siemens, Ohio Transformers, Powell Industries, Inc.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현재 멕시코 발전설비 시장에서 스위치, 케이블, 전기장비 부품, 전기 변환장치, 전기모터 부품, 전기모터, 전원장치, 전기 저장 배터리 및 부품, 보드, 컨트롤 패널, 절연장비, 콘덴서, 레지스터, 열병합 발전 시스템 등에 수요가 높다.

요르단 광섬유 및 광케이블 시장 유망

최근 요르단의 인터넷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광섬유 및 광케이블 시장이 유망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라크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 경우 우회 수출 수요 증가로 수요가 더욱 증가세를 보일 전망으로 광섬유 및 광케이블 시장은 입찰 시장이기 때문에 현지 에이전트 선정이 필수이며 수출업체 자체의 경쟁력과 에이전트의 능력이 조화를 이룰 때 성공적인 수주가 가능하다.

요르단의 광섬유 연간 수요는 100만불 규모이며 광케이블 연간 수요는 200만불 규모인데 입찰 품목이기 때문에 수요 규모가 안정적이지 않은 편이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지 생산이 전무하여 전체 수요가 수입으로 충당되는데 광섬유의 주요 수입 상대국은 중국(22%), 영국(20%), 미국(15%), 홍콩(8%), 독일(8%), 한국(5%) 등이

며 광케이블의 주요 수입 상대국은 터키(40%), 미국(17%), 한국(12%), 독일(12%), 사우디 아라비아(10%) 등이다.

요르단에서 광섬유 및 광케이블 시장은 요르단 국영 통신사 납품을 위한 입찰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 및 품질 면에서의 경쟁이 치열한 편이며, 광섬유 수입시에는 관세가 면제(0%)되고 16%의 SALES TAX만이 부과되며 광케이블 수입시에는 30%의 관세와 16%의 SALES TAX가 부과된다.

주요 입찰 에이전트들에 따르면, 광섬유 및 광케이블은 인근 걸프 연안국들로의 수출도 유망하며 특히, 이라크 시장 정상화 이후 이라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요르단에 joint venture 형태를 공장을 설립할 경우 장기적으로 매우 유망하며, 사우디, 두바이, 쿠웨이트, 시리아 등 인근 아랍제국들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요르단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인근국 수출시 운송경비 및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파나마, UPS 생필수품으로 자리잡아

파나마의 전기기기, 케이블 등 전기제품 시장은 경쟁이 매우 심하며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진 제품은 미국 제품이다. 이것은 남미 국가가 독일 등 유럽제품을 선호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점으로 오래 동안 미국과의 친숙한 관계가 그 기반이 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미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어 가격, 운임 등이 경제적이고 납기 면에서 신속하며 지극히 적은 주문량도 100% 수용해 준다는 점이다. 파나마는 전기제품 규격에 관한 한 미국의 규격을 따르기 때문에 미국 제품에 유리한 기반이 되고 있다.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US\$)

원 산 지	2001	2002	2003
미 국	3,641,772	3,236,683	3,698,846
콜론자유무역지대	726,768	593,611	450,577
중 국	659	140,111	46,544
베네수엘라	112,142	108,545	106,526
한 국	6,000	1,959	5,387
기 타	309,125	176,400	484,648
합 계	4,796,466	4,257,309	4,792,528

(자료원 : 파나마감사원)

상기 통계 상으로 Hs Code 850440 에 해당하는 제품 수입은 매년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일정하지 않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지니는 것은 미국 제품임을 알 수 있다. 가장 잘 알려진 미국 UPS로는 Belkin, APC, Tripp-Lite 등이 있으며 대만의 Selectron도 가격이 경제적이어서 많이 수입한다. 가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상 표	용 량	단 가
Belkin	1,000 VA	\$170.00
Selectron	1,200 VA	\$190.00
Selectron	2,000 VA	\$400.00

가장 많이 쓰는 UPS는 280VA에서 3천VA까지로 가정이나 사무실의 컴퓨터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 20 KVA에서 300 KVA에 이르는 용량의 UPS는 보통 공공부문 조달을 통해 많이 구입하며 은행, 전력, 통신 등 업체에서도 구입한다. 이러한 제품 단가는 낮게는 \$15,000에서 높게는 \$300,000에 이른다. 매년 5월-12월의 비가 오는 계절에는 특히 번개가 매우 강하고 낮게 쳐 번개가 떨어지고 정전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UPS는 파나마에 있어 필수품 중의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파나마의 기후조건 및 기업체 필요성에 의거, UPS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파나마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1년 간의 제품 warranty를 요구한다. 대부분 업체는 아시아 제품은 너무 지리적으로 멀고 기술지원을 받기가 어려움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 마이애미 같은 곳에 보세창고를 두고 스톡세일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UPS는 콜론을 통한 중계무역도 가능한 품목이며 콜론 수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US\$)

원 산 지	2001	2002	2003.1-6
미 국	493,481	452,451	132,225
대 만	440,680	363,914	324,859
중 국	20,343	11,419	16,814
홍 콩	11,011	133,894	23,679
한 국	0	9,354	0
기 타	137,737	287,314	6,400
합 계	1,103,252	1,258,346	503,977

(정보원 : 파나마감사원)

HS Code 850440 인 UPS 제품의 수입관세율은 5%, 부가가치세 5%이다.



이라크, 전후 한국산 회로 차단기 인기 급증

이라크에서는 회로 차단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후 치안 불안으로 아직까진 산업용 수요는 미미한 편이고 본격적인 주택 건설 붐도 일지 않고 있으나 전력 부족에 따른 제네레타 수입 급증과 각종 전기제품 판매 신장과 더불어 전력 과부하 및 단선으로부터 전기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누전용 및 배선용 회로 차단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루에도 십여 차례 발생하는 예고 없는 단전, 전력 공급이 일정치 않은 발전기 사용 등으로 에어컨, 세탁기 등과 같은 비교적 고가의 각종 전기제품을 못쓰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해주는 회로 차단기를 찾는 가정이 점점 더 늘고 있다.

브랜드 제품의 경우 에이전트/딜러샵 운영체제가 아닌 개별 바이어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주로 중국 및 터어키 산이 이런 방식의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회로 차단기 사양 별로는 25, 32암페어 단상용 제품이 64%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63 암페어 짜리가 2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ADB, 방글라데시 전력산업에 2억달러 지원결정

ADB(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는 만성적으로 부족한 방글라데시의 전력공급을 위하여 내년도에 2억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ADB는 지난 10년간 방글라데시 전력산업지원을 위하여 매년 1-2억불의 자금을 제공하여왔으며, ADB이외에도 방글라데시는 IDB(International Development Bank) 및 WB(World Bank) 등으로부터도 전력산업과 관련된 별도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ADB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에너지확충을 위하여 2억 8천6백만불의 차관을 지원한 바 있으며, 당시 전력분야의 개발프로그램과 주요 프로젝트(20MW 발전소 건설, 10개시의 배전시설 확충 및 Upgrading, 람푸라지방에 National load dispatch center 설치) 등에 각각 1억불과 1억8천6백만을 지원한 바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프로젝트가 올해말로 끝나게 됨에 따라 ADB에서는 기존의 프로젝트이외의 향후 3년간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2005년도의 전력 지원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방글라데시의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시드히르공지(Siddhirgonj) 발전소 및 치타공(Chittagong)의 배전시스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전력산업의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민간발전소 건립 및 민간 전기판매를 비롯하여 송전부문을 전담하는 국영기업인 PGCB(Power Grid Company of Bangladesh) 및 수도 다카지역의 배전을 맡고 있는 DESCO(Dhaka Electric Supply Company) 등을 주식회사화하는 등 그동안 국영중심이던 발전부분에 민간자본과 운영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3년도 방글라데시의 전력생산 용량은 4,680Mw이나 시설노후화 등으로 3,622Mw 정도 만이 생산 가능하며 이는 매년 30%이상씩 증가하는 전기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WB보고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전체인구의 약 13%

만이 전력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방글라데시정부에서는 2004년 32%로 발표), 연간 1인당 전력소비량도 136kWh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전기공급이 비교적 안정적인 도시 지역조차도 잦은 정전으로 산업체의 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2005년까지 전력 수요량이 약 7,000Mw에 이를 것으로 보

고 있는데, 이에 맞춰 전력을 생산하려면 약 50-60억불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신규발전 및 송배전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비록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자체 및 외부자금조달을 통해 신규전력생산과 시스템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방글라데시의 전력부족현상은 향후 5년이상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파키스탄, 전력부문 설비류 2015년까지 관세면제 추진

파키스탄은 전력부문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동부 관련 기계, 설비류의 관세 및 거래세 등 정부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은 최근 카라치 외곽 사막부근인 Thar 지역의 풍부한 석탄자원을 이용하여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프로젝트 추진에 중국기업인 Shenhua Group이 관심을 보임에 따라 프로젝트의 조기 확정을 위해 세금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Central Board of Revenue) 등 관련부처에서 세금 면제안을 협의중이며 기본안에는 2015년까지 석탄광산 및 전력부문 관련 기계, 설비류의 관세 등 제반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키스탄은 최근 산업투자가 활발하고 소비도 늘어나고 있어 산업 및 가정용 전력수요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규모 투자가 어렵고, 수요증가폭이 너무 커 전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력부문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세금면제 방안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현재 파키스탄은 경제발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투자도 증가함에 따라 향후 전력, 도로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유치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정책도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